

대비 5.2% 증가했다. 다만 명예퇴직금과 대우조선, 금호타이어 관련 총당금 등으로 인해 4분기 순이익은 2016년 동기보다 65.4%나 줄어든 2천15억원으로 집계됐다. 신한은행은 2017년 1조7천11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2016년 대비 11.8% 감소했다.

하나금융은 2017년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2조368억원으로 2016년보다 53.1% 증가했다. 이는 2005년 12월 지주사 설립 이후 역대 최대 연간 실적이다. 핵심 관계사인 KEB하나은행의 경우 2017년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2조1천35억원으로 통합은행 출범 이후 최대 실적을 냈다.

우리은행은 2017년 순이익(연결기준)이 2016년 대비 19.9% 증가한 1조5천121억원으로 집계돼 5년 만에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2017년 4분기 순이익은 1천340억원으로 2016년 동기보다 16% 줄었다. 우리은행만의 순이익은 1조3천991억원으로 2016년 대비 23.3% 증가했다.

농협금융은 2017년 순이익이 8천598억원으로 2016년 3천210억원보다 167.9% 늘었다. 농협금융이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농업지원사업비를 포함하면 순이익은 1조1천272억원으로 1조원을 넘는다. 다만 4분기 순이익은 1천313억원으로 2016년 동기 대비 40.9% 감소했다. 계열사 중에선 농협은행이 6천521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2016년 1천111억원과 비교해 순익 규모가 6배 가까이 커졌다.

증권

■ 개요

2017년 국내 주식시장에 '불마켓'(Bull market·황소장: 장기간에 걸친 추가 상승장)이 찾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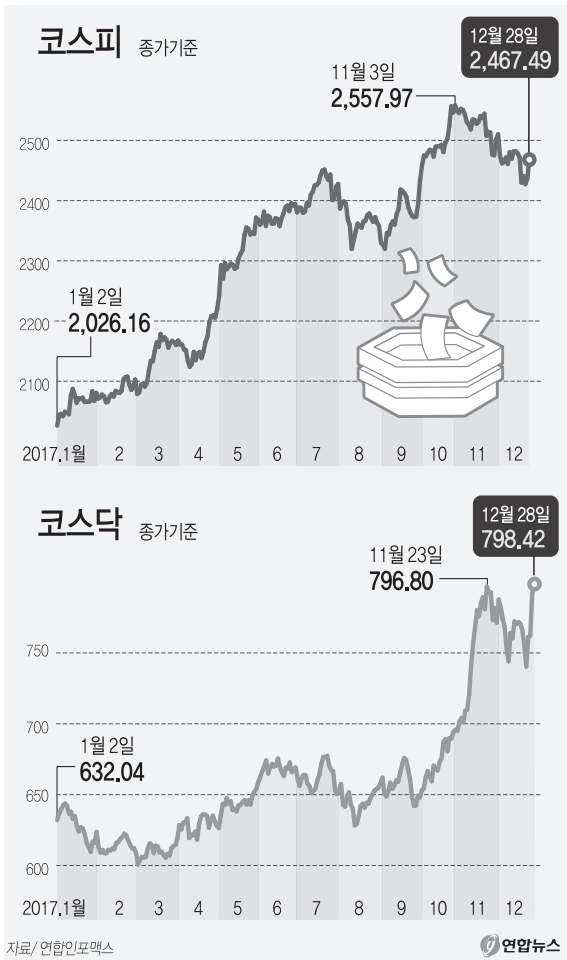
코스피지수는 지난 6년 동안의 지지부진한 흐름을 끝내고 사상 첫 2,500 시대를 열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찾아온 글로벌 경기 개선 흐름 속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큰 폭의 이익 상승을 이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코스닥지수 역시 하반기 급상승하면서 10년 만에 800선을 밟았다. 바이오 업종이 '과열 논란'까지 겪으며 급격하게 올라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 사상 첫 코스피 2,500시대 열려

코스피지수는 폐장일인 2017년 12월 28일 2,467.49에 장을 마쳤다. 2016년 말보다 21.76% 올랐다. 2017년에 기록된 코스피 지수 역대 최고치(종가 기준)는 11월 3일의 2,557.97이었고, 가장 낮았던 날은 증시 개장일인 1월 2일(2,026.16)이었다. 연초부터 큰 부침 없이 꾸준히 상승했다는 의미다.

코스피지수는 2011년 5월 이후 2,200선을 넘지 못하고 2,000~2,200선에 갇혀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2017년 5월 4일 증가 2,241.24를 기록하면서 6년 동안 갇혀 있던 박스권 천장을 깨고 거침없는 기록 경신 행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같



은 달 코스피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2,300선을 넘었고, 7월에는 2,400, 10월에는 마침내 2,500 고지까지 정복했다.

이 과정에서 7월 13~24일 8거래일 동안 매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진기록이 나왔고, 2016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8개월 연속 상승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쓰기도 했다.

2017년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1천606조원이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처음 1천300조원을 넘겼는데 2017년에는 300조원 가까이 불어나며 단숨에 1천600조원 시대에 접어들었다.

유가증권시장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5조3천억원으로 2016년(4조5천200억원) 대비 17.9% 증가했다. 거래대금이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 2년 만이다. 다만 대형주 위주로 거래가 증가하면서 하루 평균 거래량은 3억4천만주로 2016년(3억8천만주) 대비 9.0% 줄었다.

■ 불붙은 '대형주'…삼성전자 41.40% 상승

코스피지수의 최고치 행진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 국내 기업 수출 증가와 실적 개선, 외국인 자금유입 등이 밑거름이었다.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된 정보기술(IT)·반도체·화학 등 대형 경기민감·수출주가 약진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시총 '대장주' 삼성전자는 2017년 41.40% 상승했고 시총 2위 SK하이닉스도 7.14%나 뛰어올랐다. 2017년 전 세계를 휩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서 인공지능·클라우드 컴퓨팅 등이 부각되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 컸다. 이들 IT 대장주는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조정을 받기는 했으나 11월까지 연일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며 상승 동력을 제공했다. 삼성전자는 '주가 280만원 시대'를 열었다.

시총 증가분도 대형주의 몫이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총 중 대형주 비중은 1천253조원(78.0%)으로 2016년보다 244조원(0.9%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비해 중·소형주의 비중은 각각 1.5%포인트와 0.6%포인트 줄었다.

특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329조원으로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총의 20.51%를 차지했다. 2016년 말의 19.37%에서 1.14%포인트 올랐다. 삼성전자 시총은 2016년 말보다 75조5천억원 늘었는데 이는 2017년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총 증가분(298조원)의 25.3%에 해당한다.

대형주 강제 영향으로 10대 그룹 상장사 시총 합계도 2016년 말 781조5천억원에서 2017년 976조8천억원으로 25% 증가했다. 이 중 삼성그룹의 시가총액은 505조8천억원으로 2016년보다 111조원(28.1%) 늘었다.

시총 증감률은 LG그룹(46.7%), SK그룹(40.1%), 포스코그룹(28.1%), 현대중공업그룹(21.1%) 등의 순으로 높았다.

■ 증시 상승률 G20 중 6위··일본·영국·중국 등 앞질러

2017년 유가증권시장 상승률은 미국 등 주요국 증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다. 한국거래소가 집계한 2017년 주요 20개국(G20)의 증시 대표지수 상승률 가운데 유가증권시장(21.76%)은 6위를 차지했다.

대표지수의 상승률이 한국을 앞선 국가는 아르헨티나(77.72%), 터키(47.60%), 인도(27.91%), 브라질(26.86%), 미국(25.08%) 등 5곳뿐이다. 인도네시아(19.99%)가 7위였고, 일본(19.10%), 남아프리카공화국(17.47%), 이탈리아(13.61%), 독일(12.51%) 등의 순이었다.

한국의 증시 상승률은 영국(7.63%)이나 중국(6.56%), 유럽연합(EU·6.49%) 등을 크게 뛰어넘었다. 2016년도에 한국의 증시 상승률이 3.32%에 그쳐 G20 국가 가운데 14위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매우 크다.

■ 늦게 발동 걸린 '대기만성' 코스닥··800선 터치

주식시장의 '아우'인 코스닥시장도 상승세가 가팔랐다. 코스닥지수는 2016년 폐장일의 631.44보다 26.44% 오른 798.42로 2017년 장을 마쳐 코스피지수 상승률을 앞질렀다.

코스닥지수는 연초만 해도 600선이 위태로웠다. 3월 3일 종가는 600.73이었고, 장중 500대까지 밀려나기도 했다. 장미 대선 이후에도 600대에서 등락하던 코스닥지수는 추석 연휴 직후 가파른 상승세를 타면서 '역대급' 한 해를 향한 등정을 시작했다. 정부가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데다, 연기금이 코스닥에 투자를 확대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

서 코스닥이 달궈지기 시작했다.

11월 20일 785.32를 찍으며 2015년 이후 묶여있던 전고점 782.64를 넘어섰다. 11월 24일에는 장중 800선을 넘었다. 바이오주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한미약품 불성실 공시 사태 이후 침체기를 겪던 제약·바이오주가 2017년에는 시장 주도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바이오종목이 속한 코스닥 기타업종은 68.16% 올랐고, 제약업종도 59.3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2017년 말 현재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사 중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신라젠, 티슈진,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휴젤 등 7개사가 바이오·제약 업종이며, 이들의 시총은 전체 시장의 21%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 내 비중이 크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이익이 없는 신라젠이 신약 개발 기대감만으로 연중 605%까지 치솟고, 2017년 갓 상장한 티슈진의 시가총액(3조1천억원)이 국내 매출 1위 제약사 유한양행(2조6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과열·고평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거래량이 급격히 늘면서 11월 21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코스닥 하루 거래대금이 10조원을 돌파했다. 2017년 일평균 코스닥 거래대금은 3조6천88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스닥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1~10월까지만 해도 2조~3조원에 머물렀으나 11~12월에는 하루 평균 6조5천억원씩 거래되면서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 사드·北핵실험··장애물 뛰어 넘은 증시

2017년 증시가 꽃길만 걸은 것은 아니었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조치로 중국시장과 관련된 종목이 폭락하기도 했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증시 전체가 퍼렇게 질린 위기도 있었다.

사드 배치가 결정된 2016년 7월 13일 이후 중국은 한국 여행을 금지하는 등 보복 조치를 노골화했다. 중국인들이 한국 제품 구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잇따라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여행 등 중국 시장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10월 한중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부진을 겪었다.

북한의 도발도 계속됐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 이후에도 10차례가 넘는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다행히 우리 증시는 몇 차례 도발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튼튼한 펀더멘털을 보여줬다.

그러나 북한이 9월 3일 제6차 핵실험을 저지르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화염과 분노' 등 말 폭탄을 주고받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코스피지수는 한동안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11월에는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수확능력시험이 일주일 미뤄지자 사상 처음으로 증시가 2거래일에 걸쳐 순연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주식시장은 탄탄한 기초 체력으로 여러 장애물을 뛰어넘고 사상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도입··일부 효과도

공매도가 몰린 종목을 하루 동안 거래금지하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가 2017년 처음 도입됐다. 이 제도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공매도 비중을 다소 줄이는 효과를 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식으로 갚는 투자기법이다. 빌릴 때 빌려 싼값에 값을수록 수익이 난다. 즉 주가가 내려가면 이익을 보는 구조다.

개인투자자들은 주가가 오를 때는 상승 흐름을 꺾고, 하락 기에는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공매도에 대한 반감이 강하다. 특히 일부 세력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매도 의혹도 제기됐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 첫 도입 때는 지정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6개월 뒤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완책이 마련되면서 시장에 안착했다.

제도가 도입된 2017년 3월 27일부터 같은 해 연말까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건수는 179건이었다. 중복을 제외하면 135종목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그중 셀트리온제약은 총 7차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지정 횟수가 가장 많았다. 그렇지만 셀트리온제약의 주가는 연간 156.07% 올랐다.

이 제도 시행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공매도 비중은 일평균 7.26%에서 6.18%로 줄었다. 지정 요건을 완화한 이후에는 이 비중이 4.89%로 더 떨어져 제도 도입의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코스닥시장에선 제도 시행 후 공매도 거래 비중이 도리어 높아졌다.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제도 시행 전(1.70%)이나 시행 후(1.70%)에 별 차이가 없었고, 요건 완화 이후에는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2.36%로 높아졌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한 첫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중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모범 기준'의 핵심 항목 10가지를 준수하는지 자체 평가해 공시하도록 한 '기업 지배구조 공시제'가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자율 공시 사항인 탓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48개사 중 참여사는 70곳에 그쳤다. 이 가운데 39곳은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연초에 공시한 보고서를 재공시한 금융회사여서 이를 제외하면 실제 참여 상장사는 31곳(4.1%)에 불과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월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회의실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예정기관 간담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운용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단계적으로 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코드도 한국 증시의 할인 요소를 완화해 줄 요소로 꼽혔다.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는 2016년 말 제정돼 2017년 말에 제정 1주년을 넘어서는 때까지 참여 기관이 15곳에 그쳐 확산 속도가 매우 더뎠다. 그러나 600조원 이상을 굴리는 '큰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배당 등 주주환원정책에 힘이 실려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는 기대감이 확산됐다.

한국 증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유통업

■ 개요

오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은 유통업계는 2017년에도 지속된 소비 부진으로 고전했다.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데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북핵 위기 등 외부적인 악재도 영향을 끼쳤다.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주요 유통업계 매출은 2016년보다 6.2% 늘어났다. 수치상으로는 플러스(+) 성장률을 이어갔지만, 2016년도 8.5%보다 증가율이 낮아졌다. 오프라인 매출이 3.0%, 온라인 매출이 13.2%로 성장했지만, 2016년 오프라인 매출 4.5%, 온라인 매출 18.1% 성장에 비하면 성장률은 저조했다. 부문별로 보면 오프라인에서는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편의점 매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편의점은 즉석식품과 수입맥주 등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문서 출력과 공과금 수납 등 생활편의서비스를 강화하면서 2016년 대비 10.9% 성장했다. 반면 백화점(1.4%), 대형마트(-0.1%), 기업형슈퍼마켓(SSM·0.4%)의 매출은 2016년과 비교하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거나 뒷걸음질 쳤다.

온라인 매출은 편리한 쇼핑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온라인판매중개(8.6%)와 온라인판매(27.0%) 모두 성장세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SSM 등 오프라인 매출 비중은 2016년 68.2%에서 2017년 66.1%로 줄었고, 온라인 비중은 같은 기간 31.8%에서 33.9%로 확대됐다.

상품군별로는 가전·문화, 식품, 서비스 비중이 소폭 증가하고, 패션·잡화 등 다른 부문 매출은 다소 줄었다.

■ 백화점

유통업종을 대표하는 백화점은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소비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백화점을 찾는 고객이 줄고, 정부 규제와 시장 포화 등으로 신규 점포 개설도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추운 날씨로 겨울 의류와 가전 등의 판매가 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 등으로 고객을 끌어들이면서 2017년 백화점 매출은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전